Hyun Lee

Celebration in Memory of he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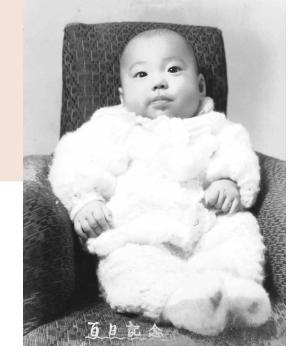


변혁과 자주민주통일을 꿈꾼 국제활동가 이현정: 삶과 투쟁의 발자취

고 이현정 님은 암 투병의 마지막 시기인 2022년 2월 중순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날인 3월 6일까지 병상에서 자신의 삶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술했습니다.

이 영상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혼신을 다해 의식을 추켜세우며 남긴 그의 구술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1970년 9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나의 아버지는 대기업체의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다. 신흥 중산층. 이것이 어린 시절 나의 가정 배경이다.

나는 미국에 오기 직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파트 뒤편에는 논이 있었다. 겨울에는 논이 스케이트장이 되었고, 나는 동생과 이 곳에서 자주 놀았다. 여덟 형제의 장손인 아버지의 첫 딸로,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의 사랑을 탐뿍 받으며 산 행복한 나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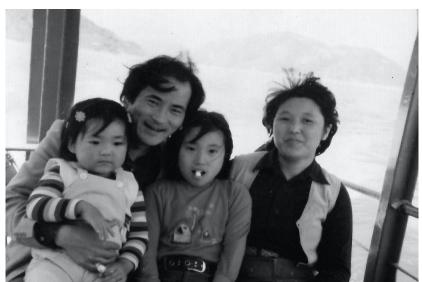




















미국으로 이주





1979년 어머니는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셨다. 그리고는 1980년 아버지도 미국으로 가셨고, 우리를 불렀다.

1981년 2월 나는 동생과 미국으로 왔<mark>다.</mark> 그 날을 잊지 못한다.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외할머니는 하염없이 우리를 바라 보았다.

로스앤젤레스공항에 아버지께서 마중 나오셨다. 디즈니랜드를 구경갔고, 라스베가스를 갔다. 꿈과 같았다. 이 것이 나의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이다.

어머니가 교환교수로 있는 인디애나주에서 가족들은 재회했다. 미국에서의 삶이 시작됐고 꿈은 현실 속에서 사라져갔다.





인종차별, 집을 나서다

미국 학교에서 나는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어느 날 화재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결국, 우리 가족은 플로리다주로 이주했다. "나는 외로웠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동양인이 단 두 명뿐이었다. 나는 늘 식당 밖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다. 숨 막히는 답답함이 밀려왔다. 이 곳을 벗어나자!

나는 홀로 집을 나서서 매사추세츠 주의 한 기숙학교(Boarding School)로 갔다.

고등학교 3, 4학년을 여기서 보냈다."



대학과 나의 앞날...

나는 1989년 콜럼비아대학 영문학과에 진학했다.

1991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반전 집회가 열렸고 나는 여기에 참석했다.

이후 나는 뉴욕 맨하튼의 반전 시위에도 참가하기 시작했다.





대학 4학년, "집안이 좋은" 동기들은 부모님의 연줄로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섰다. 나는 갈 곳을 찾지 못 했다. 또 혼자였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누렸던 부유한 생활, 미국학교에서 받았던 인종차별,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 부모님, 남들과는 다르다고 느껴지는 성 정체성, 싹트기 시작한 사회 정의 의식...

내 삶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아직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다.





나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다.

어린 때는 집을 나서서 먼 길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자주 잃었다. 그래도 또 나갔다.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곁을 떠나 기숙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이집트를 갔었고, 대학 때는 영국 런던에서 1년, 체코 프라하에서 3개월 머물렀다.

대학을 나선 나는 어쩌면 홀로 길을 찾는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는지 모른다.

이후의 삶 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동지를 만났고, 조직을 만났고, 거리에서 아우성치는 수 많은 민중을 만났다.

사회 정의와 변혁을 꿈꾸는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길을 걷고 있었고, 나도 그 속에 있었다.

이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다. 나의 불꽃 같은 삶이 시작됐다

CAAAV, 나의 첫 조직

"대학을 나선 나는 CAAAV Organizing Asian Communities (캐브-반 아시안 폭력 대처위원회)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3월 25일, 나는 하루 전 경찰 총격에 의해 살해된 16살 난 중국계 이민자 황용신(Yong Xin Huang)의 가족을 찾아 나섰다. 브루클린 일대를 무작정 뒤졌다. 어느집에서 통곡소리가 들려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 나왔고 오열하고 있는 어머니와 세 자매가 눈에 들어왔다."

" Yong Xin Huang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살인 경찰의 기소를 위해 나는 5년을 뛰어다녔다. 중국계 이민자는 물론 아시안들과 흑인, 중남미계 이민자가 함께 단결했다. 우리는 거리에서, 경찰청사 앞에서, 그리고 검사 사무실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직가, 거리의 투사로 나서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살해 경찰은 기소되지 않았다. 정의는 없었다.

미국 사법제도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던 나는 그날 텅빈 CAAAV 사무실에서 밤새 울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단단해지자, 더 이상 기대와 환상을 갖지 말자."

투쟁을 통해서 나는 이제 활동가가 되었다.

나는 종횡무진 달렸다. 운동의 조직가, 거리의 투사로...

나의 활동 반경은 넓어졌다. 지역사회운동, 성소수자운동, 반제반전운동, 제 3세계연대운동, 재미동포 1.5, 2세대 청년운동에 나는 뛰어들었다.



지역사회운동, 소수민족운동, 반제반전운동에 참여하다.

1994-2004 CAAAV 정치국장(Political ED)으로 상근 활동.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노점상권익운동, 세입자권리운동, 경찰폭력반대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에 적극 참여.



CAAAV내에 청소년 지역사회운동체인 차 이나타운 정의프로젝트(CJP) 조직 .

1999

1997-1999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참가한 사회변혁 운동그룹 조직.

미국내 소수민족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미국 속의 제 3세계(Third World Within)'를 조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 라크침공을 반대하는 활동과 반제반전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을 전개.

2001-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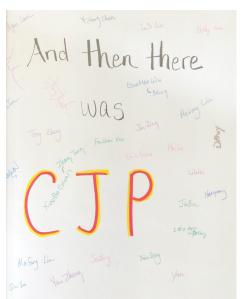
















재미동포 1. 5세대 청년운동, 성소수자운동에 참여하다.

1995

재미동포 사회운동 연수 활동인 '재미동포청년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 '(KEEP)' 창립에 참여하고, 2주간 동안한국 방문



재미동포 성소수자모임 '이반 / QKNY'조직, 활동.

1995-1999

1995-1997 CAAAV에 재미동포 봉제 여성 노동자를 위한 영어교실 개설, 운영.

'7. 27 정전협정체결 50주년 워싱턴 디씨 자주평화대회'에 CAAAV대표단을 인솔하여 참가, 연대사 발표.

2003

영어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활 영 어

생활 영어를 배우면서... 1. 여성 문제 2. 근로자 권리 3. 직장에서의 인종 관계 ...에 관하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

모든 수준을 환영 합니다. 수업료는 3개월에 \$25 입니다.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4 p.m.- 7 p.m. 기간 : 7월 23일- 10월 22일

장소 : 323 W. 39가, 2층 (8가와 9가 사이)

반아시안 폭력 행의 반대 위원회 (Committee Against Anti-Astan Vlolence) 191 E. 3rd St. NY NY 10009 전화: 212-473-6485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활영어

생활영어를 배우면서 1. 여성문제, 2. 근로자 권리, 3. 직장내에서의 인종관계에 관하여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 매주 토요일 3시간 씩 3개월. 수업료는 3개월에 25달러.









제 3세계 연대운동을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하다.



1996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쿠바 지지 연대성 국제행사에 2주간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

인도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 (World Social Forum, WSF)에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2주간 참가.

2004

2005-2015 필리핀 민족민주운동체 바이얀(BAYAN) 초청으로 3차례 필리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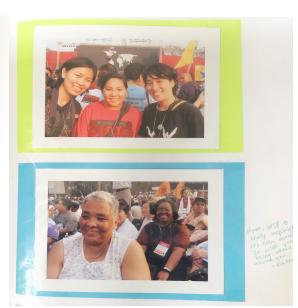
수박만 미군기지반대활동 및 필리핀 진보운동단체와 연대, 지원활동을 전개.

미국 대표단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웨스트 뱅크 지역 방문. 팔레스타인주민들의 실상을 접함. 미국에서 팔레스타인민족해방운동에 연대, 지원 활동 동참.

2012

















코리아 진보운동에 참여하다.

CAAAV의 활동을 마친 나는 2005년 CJP 친구들과 함께 한국, 중국, 홍콩, 대만을 돌며, 그 곳의 진보운동단체들을 방문했다.

홍콩을 방문했을 때, WTO 홍콩 각료회담 저지 국제투쟁위원회측에서 급히 나를 찾았다. 나는 이들을 도와 한국의 1,000여 원정투쟁단이 홍콩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통역과 사전 준비작업을 현지에서 했다.





얼마 뒤 2006년 6월 한국에서 한미 FTA 저지 방미원정대 100 여명이 워싱턴 디씨에 왔다. 그 때 나는 한미 FTA 저지 재미위원회에서 국제담당으로 활동했다.

이 일들을 계기로 나는 점점 코리아 문제에 깊이 있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제연대 활동가로 국제사회에 코리아문제를 알리고, 이어주는 역할이었다.

2006년 부터 2008년 까지 3년 동안 나는 뉴욕의 재미동포 1.5, 2세대 단체인 '노둣돌'에서 상근자로, 2017년까지는 회원으로 활동하며, 코리아 문제에 대한 연대 사업에 활발히 참여했다.

한미 FTA 저지 활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 한국 노동운동과 전농 지원 활동 등등...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CAAAV의 활동은 나를 활동가로 성장시켰고, 30대 중반 부터 노둣돌 활동을 하며 코리아운동에 대한 나의 이해와 실천이 깊어졌다.

한편 나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Tri-State College of Acupuncture를 수료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이후 한의사가 나의 직업으로 되었다.







































조국을 찾아서

노둣돌 활동 시기, 나는 '조국'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남과 북을 방문했다.

1995년 나는 '재미동포청년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KEEP)' 창립에 참여하고, 2주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사회운동단체 방문, 농촌 활동,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집회 참가, 8. 15 50주년 범민족대회 참가 등을 했다.

이어 2005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2011년 '재미동포청년 방북프로그램 (DEEP)'에 참가하여 2주간 조선을 방문하면서 '반쪽의 조국'이 아닌 '하나의 조국'을 온 가슴으로 느꼈다.

1995년 남측의 판문점을 갔었던 내가 2011년 북측의 판문각을 가면서 분단을 상흔을 통렬히 느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어 기필코 조국을 통일해야한다는 겨레의 염원이나의 가슴에 메아리쳐왔다. 우리민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든 분단의 상처가 깊숙이 박혀있다.

해방 직후와 6. 25전쟁 시기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자행된 130만 여명의 양민학살 문제는 남의 일의 아니라 내 가족의 '숨겨진 가족사' 이기도하다.

나의 친할머니 형제 중에는 해방 직후 분단을 반대하며, 진보적인 활동에 나섰다가 무참히 학살 당한 분들도 있고, 억울하게 10여년 이상 옥고를 치룬 분도 계시다.























변혁운동에 뛰어들다

국제활동가로서 자주민주통일을위한 발걸음을 내딛다





운명같은 시간 앞에서

나의 삶과 투쟁에서 40을 갓 넘긴 2010년대 초는 운명과 같은 시간이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걸려서 고생했던 암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다른 한편, 나는 정치학습모임에 참가하면서, 내 운동과 투쟁의 진로를 확정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기로 결심한 시간이기도 했다. 이후 나는 이 길을 동지들과 조직, 그리고 조국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속에서 나는 정치정세, 사회변혁운동이론, 조국통일운동이론을 학습하였으며, 사업 방침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찾아 나섰다.

지난 10년 나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코리아 변혁운동에 힘을 쏟았다. 나는 코리아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선전가로, 한국의 진보정당을 지원하는 국제연대 활동가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촉구운동을 전개하는 조직가로 대중활동을 벌여왔다.

선전 활동

나는 조국의 사회정치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선전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방면에 걸쳐서 벌였다.

2010년 - 2015년

진보적 라디오 방송 WBAI 의 Asia Pacific Forum 프로그램 제작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조국의 사회정치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림.

2015년 - 2019년

한국의 사회운동 소식 및 분석기사를 편집하는 영문 온라인 뉴스매체 '줌 인 코리아(Zoom in Korea)'에서 편집책임자로 활동.

2 0 1 6 년

한국의 성주 사드 배치 반대활동을 위해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VFP) 회원들과 함께 미국대표단 일원으로 방한했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금지조치를 당함.

2012년 - 2016년

미국인 사회운동가들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위원회(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in Korea)'를 조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정책을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영문 매체 기고 활동, 한국내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함.

2016년 - 2022년

Korea Policy Institute (KPI, 코리아정책연구소) 사업에 참가. 그 밖에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강연 활동을 벌였음.

KOREA EXPOSÉ

ZoominKorea

ZoominKorea is an online resource for information on and critical analysis of Korean issues. It is a project of the 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in Korea.

P nosts



ZoominKorea | 07 Sep 2017 Subscriber Only

The "Mad Bitches" of S. Korea's Irregular Workforce Fight Back

For sixteen years, Pak Geum-ja was a cafeteria worker at a public school in Suncheon, South Korea. She worked next to appliances that made so much noise...



ZoominKorea | 30 Mar 2017 Subscriber Only

THAAD Will Not Protect South

Elderly women held up signs reading "Illegal THAAD, back to the U.S!" as they marched, leaning on walking frames for support. Soseong-ri, their small village in...

Source: Korea Exposé https://koreaexpose.com/author/zoominkorea/



Scholars, advocates, and activists seeking to make the U.S. a more responsible global partner.



Han Sang-gyun of the KCT

SOUTH KOREAN LABOR STRIKES BACK

South Korean workers are preparing to strike back at their government's labor reforms, trade agreements, and general indifference to the fate of working people.

By Hyun Lee | November 12, 2015

Source: Foreign Policy in Focus https://fpif.org/south-korean-

labor-strikes-back/

Walter 1 | Insuré 1 | Audie 70 dits | Jan 25, 2015

A Korean American Housewife Confront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韓国系アメリカ人主婦が出会った韓国の国家
保安法
Byun Lee

 \equiv

On the 70°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such, the Korea Pelvis, Institute, in collaboration with The Asia-Pacific Journal, is collaboration with The Asia-Pacific Journal, is collaboration with The Asia-Pacific Journal, is collaborated by the Asia Charles of the Korean Penisualis. A People's History. Multi-steel in geographic range, this series calls used in property of the U.S. Devision of the Korean Pelvis, and consideration, the timestake wakes of U.S. stonetic consultation, to divide Korea in two. Through scholarly season, policy articles, interviews, and creative performance, this series explores the human cotts and ground-level realities of the division of Korea. See Fart II, Charles On R finds a home, Austrean Ammessa, No On R finds a home, Austrean Ammessa, No



Shin Eun-mi. Photo credit: Shin Eun-mi.

Hyun Lee interviews Shin Eun-mi

On January 10, after detaining her for questioning on charges of violating the

Source: Asia-Pacific Journal https://apjjf.org/-Hyun-Lee/4818/article.html



Source: Asian Pacific Forum, WBAI http://www.asiapacificforum.org/show-detail.php?show_id=237



Source: Women's Media Center (WMC) https://womensmediacenter.com/shesource/expert/hyun-lee

한국의 진보정당을 지원하는 국제연대 활동

나는 통합진보당, 민중당, 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국제 사업을 지원, 연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The Asia-Pacific Journal | Japan Focus

Volume 12 | Issue 52 | Number 5 | Article ID 4245 | Dec 21, 2014

The Eros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the Incarceration of Lee Seok-ki 浸食される韓国民主主義 統合進歩党の解散と李石基(イソクキ)議員の投獄

Hyun Lee



Constitutional Court delivers ruling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urrently behind bars on charges of inciting an insurrection and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This is the first tim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has ordered the breakup of a political party since it was founded in 1988. Pro-democracy advocates state that the court's ruling will set a dangerous and undemocratic precedent for state repression of other progressive par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ossibly even individual citizens.

According to South Korean public intellectual and long-time reunification activist Kang Jeongkoo, "The UPP has been the only political party



2017년 9월- 2020년 12월

민중당 뉴욕연대(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에 운영위원으로 참가하여, 민중당의 대미자주평화 외교활동을 지원.



2017년 9월

민중당 장진숙 기조실장의 방미활동 지원.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된 '민중의회 (People's Congress) '행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알리는 기조 발표와 토론회 발표를 통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사무실과 반전여성단체 코드 핑크 방문활동을 조직.

2013년 7, 8월

통합진보당 주최 7. 27 '한반도 국제포럼'에 언론인 팀 쇼락, 진보운동가 그레고리 일리치와 함께 미국 대표단으로 참가. 8. 15 민족통일행사에 참가.

2014년 - 2018년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석기 의원 석방 활동에 미국 내 저명인사들이 동참하는 활동을 전개.
(제시 잭슨 목사, 노엄 촘스키 교수, 데니스 쿠치니치 전 미 연방 하원의원, 팀 쇼락, 그레고리 일리치 등이 동참.)

나는 2020년 12월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에 창립회원이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국제사업을 담당해왔다.







2018년 3월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한 민중당 대표단의 방미 활동 지원.

미 의회 방문, 제시 잭슨 목사와의 만남, 유엔 방문, 뉴욕대 강연, 코드 핑크 초청 행사 등을 조직. 4.27 남북정상회담, 6.12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중당이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

김종훈 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만남과 툴시 개버드, 드와이트 에반스, 짐 맥거번 등 3명의 연방 하원의원과의 개별 만남을 조직.

2018년 7월

민중당의 초청으로 제시 잭슨 목사 한국 방문단의 일원으로 한국 방문. 제시 잭슨 목사를 수행하여 민중당 주최 행사와 국회 초청 행사에 참석. 당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의원을 제시 잭슨 목사와 함께 면회.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회담 앞두고 민중당 방미대표단의 미국의회, 정책연구소 방문을 조직.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과 로 칸나,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과의 면담 진행. 김종훈의원의 맨스필드재단(대표 프랭크 자누지) 초청 강연 조직 및 통역.











7월 23일(월) -2시,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

<평화통일월요기도회> -6시,임진각평화누리 공원 -제시 잭슨설교

7월24일(화)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제시잭슨 초청특강 제2세미나실,오전 10시 30분

7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민중당 지도부 면담 2시 당무위원회 특강 7월 25일(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면회 6.15남측위 지도부 간담회

7월 26일(목) 교계원로 및 지도자 간담회 오후 7시 초청 강연회

7월 27일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특강 1시 30분 국회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촉구 운동 전개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동료들과 함께 미국 연방의회 및 행정부, 미국 정책연구기관들, 미국 언론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미국 일반 대중들 속에서 코리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정치활동을 폭넓게 펼치는 일에 집중했다.

2018년 - 2021년

2018년 가을- 2021년

Woman Cross DMZ (위먼 크로스 DMZ) 조직위원으로 상근 활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내 연대체들인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연대(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에서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2019년 4월

한국 여성단체 대표자와 여성 정치인 권미혁, 이재정, 제윤경의원들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바바라 리, 잰셔카우스키 연방 하원의원 등의 만남을 조직.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강연을 조직.

2019년-2021년

미 의회와 미 행정부, 정책연구소, 언론 등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조직으로 '코리아 피스 나우 풀 뿌리 연 대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를 조직. 미 전국 12개 지역, 분과가 만들어짐.

2019- 2020년

'한반도 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 (H.Res. 152)'을 52명의 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하는데 결정 적 역할을 수행.

2020년 8월 이후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내 세 연대체 KPNGN, PTN, KPN의 협의 조정기구인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Korea Peace Partnership, KPP)'을 만드는데 앞장 섰다. 나는 KPP가 진행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촉구 활동, 미국 정부의 대조선제재조치 및 미국인의 조선방문금지조치 해제 촉구 활동,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활동, 코리아 학습모임에 적극 참여했다.

2019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캠페인 발족 및 심포지움' 발표자로 참가.

9월 경기도 주최 '2019 DMZ 포럼'의 'DMZ와 여성평화운동 ' 에 참가.

2021년 5월

미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에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문안 삽입에 중요 역할을 함.

2019년 - 2020년

미 국무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스티브 비건 당시 부장관, 코리아 데스크 과장 등 면담. 미국의 대조선제재조치와 미국인의 조선방문금지조치를 해제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의 시급성을 역설.

2017년 - 2021년

한반도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강연과 교육, 인터뷰, 기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



















































내생의마지막날들

2022년 3월 6일 일요일 나는 코네티컷 윈저의 동생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동생의 남편, 두 조카, 그리고 벗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돌이켜 보면 내 생애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또 다른 봄이 오고 있는 듯하다.

오늘 나는 나의 삶과 투쟁에 대한 구술 작업도 마쳤다.







"어머니, 아버지. 나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표현하지 못 했지만 그동안 저는 당신의 삶을이해하고 존경해왔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동생 티나(도윤)와 동생의 남편 네타, 그리고 사랑스러운 조카 탈리, 에마. 늘 당신들을 기억할 겁니다.

특히 탈리와 에마는 내가 온갖 근심을 잊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준 에너지였다. 사랑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수립,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함께 힘쓴 동료들, 고맙습니다.

저는 2023년 7. 27 정전협정 체결70주년 때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분단선을 넘고,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리라 기대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기를 염원합니다. 코리아의 자주와 통일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 표합니다. 세계의 주인은 당신들이고, 새 세상을 꼭 만들어 내리라 믿습니다." "저를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변혁운동의 길로 이끌어준 동지들과 조직, 그리고 조국에 고마움 전합니다. 잊지 못할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 짧은 말은 그가 구술을 마치며 남긴 마지막 말이다.

다음날, 2022년 3월 7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이현정 님은 우리의 곁을 떠났다.

"4월의 봄 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그 땐 제가 물과 공기가 되어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계곡의 물이 되어, 봄 날의 산들바람이 되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현정 님의 페이스북 표지 사진입니다.